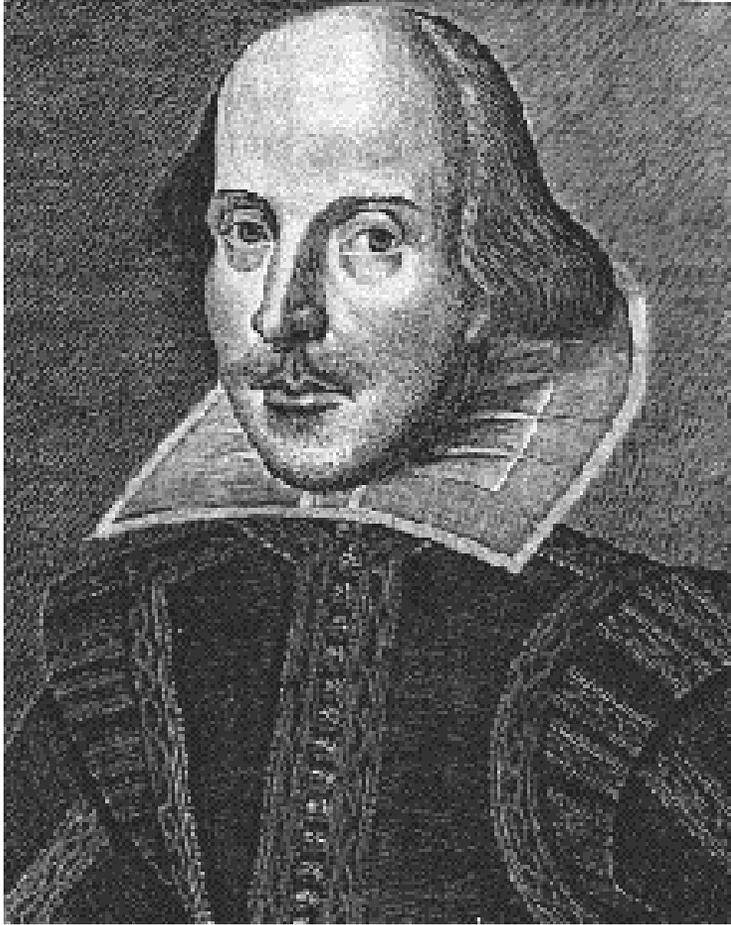


세계문학기행 p8

셰익스피어 『맥베스』 *Macbeth*

김재신



(William Shakespeare: 1564-1616)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의 생애

- 1564: 4. 26: 잉글랜드 중부 스트랫퍼드어폰에이번(Stratford-upon-Avon)에서 출생
- 1577~1580년 후반: 가세가 기울어 학업 중단 후 집안일을 도왔을 것으로 추정
- 1582: 앤 해서웨이(Anne Hathaway)와 결혼 (셰익스피어는 18, 부인은 26세), 수잔나 출생
- 1585: 햄릿(Hamnet)과 주디스(Judith)라는 쌍둥이 출생 후 고향을 떠나 방랑
- 1590: 런던에 도착 배우이자 극작가의 일을 시작
- 1592: 『헨리 6세』 *Henry VI* 상연하여 인기를 얻음, 로버트 그린(Robert Greene)이 그를 혹평함
- 1593: 런던에 페스트가 확산되고 극장이 폐쇄



- 1596: 아들의 사망, 작위를 받아 신사계급에 편입
- 1597: 스트렛포드에서 거대한 주택 구입
- 1599: 글로브극장(Globe Theatre) 신축하고 제임스 1세의 명으로 '임금님 극단' (King's Men) 이름을 얻음
- 1609: 블랙프라이어스극장(Blackfriars Theatre)의 공동 소유주가 되고 소네트 모음집 출간
- 1613: 은퇴
- 1616.4.23(52세): 사망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 그 누구보다도 걸출하고 독보적인 극작가가 셰익스피어이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천재성을 간단하게 특징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는 다양한 주인공, 주제를 수용해 다양한 기교와 이념, 전형적인 물을 그의 작품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비극 속에 어릿광대를 등장시키고 희극 속에 왕을 등장시키고, 공과 사를 병치함으로써,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섞음으로써 다양한 주인공과 주제를 보여주었다. 그는 영국의 문예부흥을 이끌었다.

- 배우이자 극작가이며 극단의 공동소유주로서 모든 차원에서 엘리자베스 시대 연극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활동한 기간(1589~1613)은 영국 문학이 가장 화려하게 꽃핀 시기와 일치하며 그의 작품 속에 문예부흥이 실천되었다.
- 그의 초기 극은 주로 역사극과 희극이다. 역사극은 그가 독자적으로 개척하여 리처드 2세에서 헨리 7세까지의 영국사 전체를 두 줄기의 4부작으로 극화하여 큰 성공을 거둔 장르이다. 헨리 6세를 다룬 3편과 리처드 3세를 다룬 1편으로 구성된 첫 4부작(1589~92)은 프랑스에 대항하는 영국의 용맹에 대한 애국적 찬양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은 이내 정치세계에 관한 성숙된 인식과 환멸로 대체되고 결국 리처드 3세라는 흥칙한 인물의 묘사로 끝난다.

• Shakespeare 의 어원: 구두 수선공

• 묘비명

- "Good friend for Jesus' sake forbear to dig the dust enclosed here. Blessed be the man that spares these stones And cursed be he that moves my bones."

- 친구여, 제발 여기에 묻힌 흙을
- 파내지 말아주오.
- 이 묘석을 아껴주는 이에게는 축복이,
- 나의 유골을 건드리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 나라.



연표

~1591년 『헨리 6세 2부·3부』

1591~1592년 『헨리 6세 1부』

1592~1593년 『리처드 3세』, 『실수의 희극』

1593~1594년 『타이투스·앤드로니커스』, 『말괄량이 길들이기』

1594~1595년 『베로나의 두 신사』, 『사랑의 헛수고』, 『로미오와 줄리엣』

1590

1595

~1596년 『리처드 2세』, 『한여름밤의 꿈』

1596~1597년 『존 왕』, 『베니스의 상인』

1597~1598년 『헨리 4세 1부·2부』

1598~1599년 『헛소동』, 『헨리 5세』

1599~1600년 『줄리어스 시저』, 『뜻대로 하세요』, 『십이야(夜)』

1600~1601년 『햄릿』, 『원저의 즐거운 아낙네들』

~1602년 『토로일러스와 크레시다』
1602~1603년 『끝이 좋으면 다 좋아』
1604~1605년 『법에는 법으로』, 『오셀로』
1605~1606년 『리어왕』, 『맥베스』
1606~1607년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1607~1608년 『코리오레이너스』, 『아테네의 타이먼』

1601

1608

~1609년 『페리클리즈』
1609~1610년 『심벨린』
1610~1611년 『겨울 이야기』
1611~1612년 『폭풍우』
1612~1613년 『헨리 8세』

초기극 : 1590-1595년의 습작극

- 역사극 :

- 『헨리 6세』 *Henry VI*, 『리처드 3세』 *Richard III*

- 희극 :

- 『실수의 희극』 *The Comedy of Errors*, 『말괄량이 길들이기』 *The Taming of the Shrew*, 『베로나의 두신사』 *The Two Gentlemen of Verona*, 『사랑의 헛수고』 *Love's Labour's Lost*

- 비극 :

- 『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 *Titus Andronicus*,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중기극: 1596-1599

- 중기 희극 : 1596-1602년 사이에 창작된 가상의 나라를 무대로 한 낭만희극
 - 『한여름밤의 꿈』 *A Midsummer Night's Dream* : 아테네를 무대로 / 『베니스의 상인』 *The Merchant of Venice* : 벨몬트를 무대로
 - 『헛소동』 *Much Ado About Nothing* : 메시나를 무대로 / 『뜻대로 하세요』 *As you like it*: 아든 숲을 무대로
 - 『십이야』 *Twelfth Night*: 일리리아를 무대로
- 영국 사극 : 영국역사에서 소재를 딴 사극
 - 『리처드 2세』 *Richard II*, 『헨리 4세 1부, 2부』 *Henry IV I and II*, 『존 왕』 *King John*, 『헨리 8세』 *Henry VIII*
- 로마 사극 : 로마사를 소재로 하여 4대 비극기와 겹쳐 창작된 사극
 - 『줄리어스 시저』 *Julius Caesar*,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Antony and Cleopatra*, 『코리오레이너스』 *Coriolanus*

완성기와 후기극: 1600-1612

- 4대 비극 : 1600-1606년에 창작된 최고걸작 비극
 - 『햄릿』*Hamlet*, 『오셀로』*Othello*, 『리어왕』*King Lear*, 『맥베스』*Macbeth*
- 어두운 희극 : 4대 비극기에 쓰여진 희극으로 끝이 개운하지 않은 극
 -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Troilus and Cressida*, 『끝이 좋으면 다 좋아』*All 's Well That End 's Well*, 『법에는 법대로』*Measure for Measure*
- 후기 극 : 1608-1612년간 작가의 만년에 쓴 로맨스 풍의 극
 - 『페리클리즈』*Pericles*, 『심벌린』*Cymbeline*, 『겨울이야기』*The Winter 's Tale*, 『폭풍우』*The Tempest*
- 시집과 소네트
 - The rape of lucrece: 초기에 쓰인 시집으로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얻어준 계기
 - 『비너스와 아도니스』*Venus and Adonis*. 젊음의 관능적 사랑을 주제 / 『소네트』*Sonnet*. 창작연대가 불분명한 소네트의 모음

역사극

- 『리처드 2세』(1595), 『헨리 4세』(제1-2부, 1596~98), 『헨리 5세』(1599)로 구성된 2번째 4부작은 약 하지만 정통성을 지닌 왕을 폐위면서 시작해 그 사건이 몰고온 결과를 2세대에 걸쳐 다루면서 그 과정에서 생겨난 왕권, 복종, 질서라는 어려운 문제를 가차없이 파헤치고 있다. 특히 『헨리 4세』는 폴스타프(Falstaff)라는 덩치 큰 인물이 등장하며 그가 장바닥에서 보이는 난폭한 행동이 두드러진 극이나, 작가는 통치자들의 장면 사이사이에 통치받는 자들의 세계를 끼워 넣어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국민생활을 만화경처럼 비춰주고 있다.

희극

- 초기 희극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중 한 부류인 『실수의 희극』(1589~94), 『말괄량이 길들이기』(1590~94), 『원저의 명량한 아낙네들』(1597~1601), 『십이야』(1601) 등은 계략 희극으로 진행이 빠르고 때로는 소극적이며 기지를 높이 평가한다.
- 『베로나의 두 신사』(1592~93), 『사랑의 헛수고』(1595), 『한여름밤의 꿈』(1595~96), 『뜻대로 하세요』(1599) 등이 속한 2번째 부류는 숲이나 공원 같은 자연으로의 여행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등장인물들은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규제에서 풀려나 사회적 관습의 사슬을 벗어버릴 수 있다.

희비극

- 그러나 그 중 어느 한 작품도 삶의 건강을 부여하는 이 희극적인 공간에 침범해오는 인생무상의 회의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희비극**에 가까운 4편의 작품, 즉 『베니스의 상인』(1596~97), 『헛소동』(1598~99), 『끝이 좋으면 다 좋아』(1602~03), 『법에는 법으로』(1604) 등에서 축제는 정상적인 상태가 부과하는 규제, 시간, 사업, 법률, 인간적 무관심, 배신, 이기심 등과 정면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1590년대에 유행한 낙관적 사회관의 퇴조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극

- 셰익스피어 시대의 혼란과 모순이 최고로 잘 표현된 것은 그의 비극이다.
- 그의 비극에는 가치, 위계질서, 형식 등이 시험대에 올라 결함을 드러내고, 사회 전체에 잠재해 있던 갈등이 소개된다. 셰익스피어는 남편과 아내를, 아버지와 자식을, 개인과 사회를 맞서도록 하고, 왕에게서 왕관을 빼앗으며, 귀족과 거지를 동일시하고, 신들을 심문한다.

- 그는 최초의 실험비극인 『티투스 안드로니쿠스』(1592~94)에서 대규모의 폭력을 다룸으로써, 『로미오와 줄리엣』(1595)에서 사춘기 사랑의 희극과 낭만적 이야기를 다룬다. 『줄리어스 시저』(1599)에서는 정치에 관심을 두었던 종래의 관심을 세속적, 연대적 비극으로 돌려, 사적인 판단착오 인한 계속된 사건에 휘말려 희생당하는 인간을 그렸다.
- 그후 **주요비극**들은 각자 독자적인 범주를 이루고 있으며, 『햄릿』(1600)은 복수비극, 『오셀로』(1603~04경)는 가정비극, 『리어왕』(1605)은 사회비극, 『맥베스』(1606)는 정치비극,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1607)는 영웅비극이다.
- 마지막으로 많은 로맨스를 남겼다

그리스 비극

-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은 가치 있거나 진지하고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완결된 행동의 모방이다. 쾌적한 장식을 한 언어를 사용하고, 각종 장식이 작품의 상이한 여러 부분에 삽입된다. 서술의 형식이 아니라 행동의 형식을 취한다. 또 연민과 공포를 통하여 감정을 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했다.
- 그는 극중 갈등으로 주인공의 불행한 결과가 있는 것만을 비극이라 보지 않고, 결말이 해피엔드로 끝나도, 엄숙하고, 공포와 동정의 감정을 통해 **감정의 정화**(Katharsis)를 가져온다면 비극으로 간주했다.
- 그리스에서는 연극이 곧 비극이라고 쓰일만큼 비극의 비중이 높았다. 신과 인간과의 운명의 관계에서 인간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대결이 비극의 주내용이었다. 당시 3대 비극 작가로는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유피피데스를 들 수 있다.

로마의 비극

- 로마의 비극에서는 공연을 통해 주인공의 육체적인 고통과 갈등을 더욱 과장하여 고문, 살인, 등의 피비린내 나는 장면이 많았다.
- 중세: 중세 기독교 국가에서는 비극이 기독교의 윤리와 사상에 위배되기에 수용될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 비극

-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의 셰익스피어 비극은 오히려 로마 비극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주인공의 고매한 인격과 태도, 운명에 초연한 자세, 그리고 대사에 있어서 시적 미사여구가 강조되었다. 그리스 비극이 구조미와 형식미를 강조했다면 엘리자베스 비극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인공 및 주인공의 성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주인공의 심리적인 미학 구조에 큰 비중을 두었다. 클리퍼드 리치(Clifford Leech)는 그리스 비극은 '가문에 내린 운명'(the doom-on-the-house)이 비극의 원인이 되는 반면, 엘리자베스 시대의 비극에서는 '성격으로 인한 운명'(the doom-in-the-character)이 그 원인이 되었다.

근대 비극

- 18세기에는 레싱에 의해 '시민 비극'이라는 특수 형식으로 변형·발전되었다. 레싱 등 많은 극작가들이 중산층에 맞는 새로운 비극 작품을 쓰려고 노력했는데,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주인공의 성격에 비극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성격적 결함과 그로 인한 파멸이었다. 이어 괴테, 실러, 클라이스트, 그릴파르처, 뷔히너, 헵벨로 이어지는 기라성 같은 극작가들이 탄생하여 독일 비극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비극사에 찬란한 금자탑을 쌓았다.
- 이 시대의 극작가들은 '화해될 수 없는 대립'을 '비극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종교, 윤리 및 정치 문제들에 대한 사회의 견해가 본질적으로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세계상을 지니는 한, 한편으로는 사회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사회의 법칙을 타파하려는 개성이 있을 때, 이것들은 화해될 수 없는 전제 사항들이라는 것이다. 비극은 일종의 필연적인 충돌으로 인해 주인공이 파멸로 귀결되는 숙명적인 투쟁으로 표현된다. 현대 들어 새로운 비극인 '희비극(Tragikomödie)'이 등장했다.
 - **[네이버 지식백과]** 비극 [tragedy, Tragoedia, Tragödie] (드라마사전, 2010., 김광요, 박진권, 황성근, 류용상, 김종대)

시대적 배경

- 셰익스피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자베드 시대를 이해하여야 하는데 엘리자베드 시대: 엘리자베드 여왕은 1558년 왕에 등극하여 1603년까지 영국을 통치했다.
- 영국의 16세기 후반은 문예 부흥기일 뿐 아니라 국가적 부흥기였다. 동시에 사회의 제반 양상들이 요동치고 변화하는 전환기이자 변혁기이기도 했다. 여왕의 통치하에서 영국은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고, 시대배경적 호조건이 뒤따랐다.
- 영국에서 셰익스피어가 갑자기 돌출했다고 보기보다는 국세의 확장에 힘입어 국민의 고양된 자긍심이 문화의 독창력으로 승화된 계기를 맞은 결과로 봄이 마땅하다.
- 크리스토폴로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
- 19세기 영국 사상가 칼라일은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크리스토퍼 말로(Christopher Marlowe: 1564년 2월 26일, 영국 - 1593년 5월 30일)

- 르네상스 시대에 매우 유명한 희곡 『파우스트박사』 *Doctor Faustus*의 작가. 젊은 나이에 천재소리를 들었으며 케임브리지 대학의 석사를 취득했다. 셰익스피어가 막 뜨기 직전에 잉글랜드서 가장 인기있었던 극작가로 말로가 장수했다면 셰익스피어의 자리는 말로가 대체했을 거라는 영문학자의 주장도 많다. 실제로 당시 잉글랜드에서 가장 많이 상영된 희곡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아니라 말로의 『파우스트박사』였다.
- 29살의 나이로 술집에서 결투를 하다 상대방에게 한쪽 눈을 찔려서 요절했는데 말로의 사망일이 동료 극작가 토머스 키드의 밀고로 추밀원에게 무신론자로 고발되어 법정에서 서기 일주일 전인데다가 말로 사망 직후 셰익스피어가 갑자기 큰 인기를 끌어서 셰익스피어는 사실 부상당한 말로가 운둔하면서 쓴 필명이라는 음모론이 굉장히 많았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말로는 잉글랜드 정부와 가톨릭 단체의 이중첩자였으며 그를 찔러 죽인 사람도 그를 감시하고 있던 정부측 스파이였다고 한다.

극장

- 이때의 공설극장은 오늘날의 극장이라기보다, 오히려 운동장을 닮은 것이었다. 대개 그 모양은 타원형이었으며, 가운데는 지붕을 덮지 않은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는 맨바닥 관람석이 있어서 관람객이 서서 관람을 하였다. 마당 주위에는 삼층으로, 지붕이 있는 좌석이 있고, 무대는 마당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관람객들이 둘러 삼면에서 구경을 하게 되어 있었다. 무대 중심이 되는 단 양편에는 두 개의 기둥이 천정을 버티고, 뒤로는 입구와 출구, 두 문 사이로 발코니와 창이 있고, 정원으로 내다보는 또 하나의 무대가 있었다. 이 뒤 무대 앞에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커튼이 있었다.
- 주연급 배우들은 일종의 주주로서, 극단의 수입을 나누어 가졌다. 극단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소년들은 길드에서 수습기를 거치는 것과 같이, 배우들에게서 수습을 받았다. 이들은 변성기가 될 때까지 극에서 여자 역할을 하였다.

Globe Thea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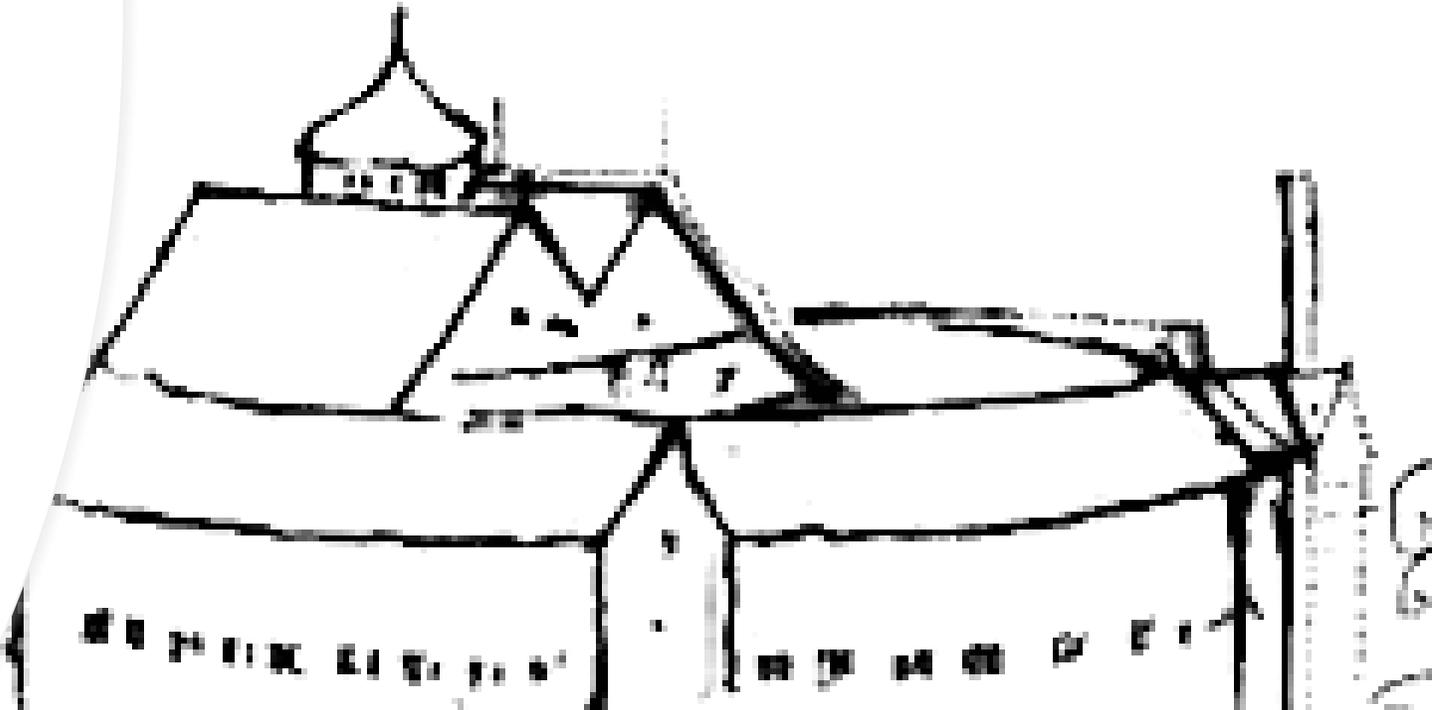
- 1598년 런던 템스 강 남쪽 사우스워크 (Southwark)에 지은 극장
- 1613년 『헨리 8세』 공연 중 화재로 소실



- 맨바닥 관람석이 있어서 관람객이 서서 관람을 하였다. 마당 주위에는 삼층으로, 지붕이 있는 좌석이 있고, 무대는 마당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관람객들이 둘러 삼면에서 구경을 하게 되어 있었다.



- 현존 건물은 1997년 17세기 원형대로 복원



『맥베스』 *Macbeth*: 1605~06년에 쓴 것으로 추정

- 등장인물

- 던컨-스코틀랜드 왕
- 맬컴, 도날베인-던컨 왕의 아들
- 맥베스, 벵코우-던컨 왕의 장군들
- 맥더프, 래녹스, 로스, 멘티스, 앵거스, 케스니스-스코틀랜드 귀족들
- 플리언스-벵코우의 아들
- 소년-맥더프의 아들
- 맥베스 부인
- 맥더프 부인
- 시녀-맥베스 부인의 시종을 돕
- 세 마녀-운명의 자매들

제1막:

-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세 마녀 등장하여 맥베스를 만나러 간다. 맥베스와 뱅코우의 공적과 마녀의 출현과 예언을 듣게 된다. 그 예언에 맥베스가 코더의 영주를 거쳐 장차 왕이 될 것이며, 뱅코우의 자손들도 언젠가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맥베스와 뱅코우는 처음에는 이 말을 믿지 않았으나, 던컨 왕은 전공을 세운 맥베스에게 마녀가 예언했던 것처럼 코더 영주의 작위를 하사한다.

제2막:

- 맥베스와 그의 부인이 공모하여 던컨 왕을 살해하고 그 죄를 술취한 경비병들에게 뒤집어 씌워 현장에서 살해한다. 불안감을 느낀 던컨의 아들들은 스코틀랜드에서 도망치고, 맥베스는 스코틀랜드의 왕위에 추대된다. 뒤이어 정적이 될 것으로 생각된 맥더프 일가를 몰살시킨다.

제3막:

- 맥베스의 갈등과 권력 유지를 위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뱅코우와 그의 아들 살해하려고 하지만, 뱅코우의 아들 폴리언스는 도주한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 살생을 계속하던, 맥베스는 환영을 보는 등 광기에 빠지기도 한다. 맥베스 부인도 몽유병에 시달리다가 미쳐서 죽게 된다. 한편 맥더프는 잉글랜드로 가서 맥베스를 칠 준비를 함
 - “아직 피비린내가 난다. 아라비아의 모든 향초를 가지고도 이 손 하나를 향기롭게 만들 수는 없다.“

제4막:

- 맥베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녀를 찾아가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함, “여자가 낳은 자는 맥베스를 해치지 못하리라.” “맥베스는 결코 정복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버어남의 대삼림이 단시네인의 언덕으로 공격해 오지 않는다면.” 맥베스는 폭군으로 전락하고 모두들 스코틀랜드를 떠난 맬콤의 편에 서게 된다.
 - 단시내인 전투의 시작, 맥베스의 자포자기, 마녀 예언을 맹신: “인생이란 걸어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자기가 맡은 시간만이 장한 듯이 떠들지만, 그것이 지나면 잊어버림을 받는 가련한 배우에 불과하다.”

제5막:

- 맥베스를 치기 위해 맬콤과 맥더프의 진격. 맥베스는 맥더프를 만난 순간 그와는 싸우고 싶지 않아 달아나려 하지만 맥더프가 겁쟁이라고 욕하자 돌아서서 자신은 "난 여인이 낳은 자에게는 쓰러지지 않는다. 넌 사내가 낳기라도 하였느냐?"고 큰소리를 친다. 그러나 맥더프는 지금까지 그딴 예언에 의지했던 것이냐고 비웃으면서, "난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배를 가르고 나온 몸이다"고 응수한다.

역사

- 1039~1056 재위: 1033년 스코틀랜드의 말콤 2세가 사망하자, 외손자 던컨이 왕위를 계승했다. 맥베스는 외가 쪽으로 말콤 2세의 손자였으며, 아내는 1003년에 말콤 2세와 싸우다 죽은 케네스 4세의 손녀이어서 서열로 보면 던컨보다 우위에 있었다. 이런 맥베스에게 아내 크라우치가 끊임없이 복수심을 불어넣었고, 사람이 아닌 존재도 그를 부추겼다고 한다. 어느 날 맥베스의 꿈에 체격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세 명의 여인이 나타나 그를 **스코틀랜드의 왕**이라고 불렀다.

1039년 맥베스는 엘진 근방의 보스고완에서 던컨 왕을 습격하여 살해했다. 왕위에 오른 맥베스는 폭군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의지가 있고 정의로우며, 공정한 군주였다는 평가도 있다. 던컨의 장남 말콤이 잉글랜드에 머물면서 스코틀랜드 내의 던컨 파를 재건했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 폭군이 되었다.

- 마침내 파이프의 군주 맥더프가 맥베스의 위협을 견디다 못해 스코틀랜드 궁정에서 도망친 뒤 노섬벌랜드 백작 시워드에게 말콤의 환국을 도와달라 요청하여, 1054년 스코틀랜드에 노섬벌랜드 및 말콤 파 연합군이 쳐들어갔다. 맥베스는 단시네인 근방에서 패배한 뒤 1056년에 럼페넨에서 살해당했고, 던컨의 아들인 말콤이 스코틀랜드 왕인 말콤 3세가 되었다.

주제

- 한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서서히 타락하여 선을 넘고 파멸에 이른다.

맥베스에 대한 마녀들의 예언

- 맥베스 만세! 글라미스의 영주 만세!
- 맥베스 만세! 코더 영주 만세!
- 맥베스 만세! 앞날의 왕이 되실 분!

- 밴쿠오에 대한 마녀들의 예언.
 - 맥베스보다 위대하지 못하지만 맥베스보다 위대하다.
 - 맥베스만큼 운이 좋지는 못하나 맥베스보다 운이 좋다.
 - 당신은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나, 그 자손들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리라.

지옥 귀신들의 예언

- 파이프의 영주 맥더프를 조심하라.
- 음모를 겁낼 필요 없다. 버어남의 숲이 궁전 앞으로 오기 전까지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 여인이 낳은 어떤 인간도 그대를 해칠 힘이 없으니 두려움 없이 용감히 싸우라.

맥베스(Macbeth)

- 그가 장군으로서 충분한 용기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로 로스 영주는 그를 높이 평가한다.
 - 전쟁의 여신 베로나를 아내로 삼은 군신 마르스처럼, / 무적의 갑옷을 입은 맥베스 장군이 단신 대결하여
 - Till that Bellona's bridegroom, lapp'd in proof, / Confronted him with self-comparisons, (I, iii, 54-55)
- 맥베스에게 마녀들이 나타나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고, 이 예언은 그로 하여금 야망에 불타게 한다.
 - 두 가지는 실현되었구나. / 이제 왕위에 오르는 찬란한 극의 희망찬 서막이 열리고 있다
 - Two truths are told, / As happy prologues to the swelling act / Of the imperial theme. (I, iii, 127-129)
 - 별들이여, 빛을 감추어라! / 이 검고 깊은 야망을 보지 마라.
 - Stars, hide your fires, / Let not light see my black and deep desires (I, iv, 50-51)
 - 내 계획의 옆구리를 걷어찰 박차가 없다 하더라도 / 내게는 꿈어 오르는 야심이 있다.
 - I have no spur / To prick the sides of my intent, but only / Vaulting ambition, (I, vii, 25-27)

- 던컨 왕을 살해하고 나서 그는 심하게 갈등하며 악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성격을 드러낸다. 또 다른 맥베스의 모습
 - 이 무슨 비참한 꼴인가. / This is sorry sight. (II, ii, 17)
 - 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소. /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오. / 두 번 다시 보기도 싫소.
 - I'll go no more. / I am afraid to think what I have done: / Look on't again I dare not. (II, ii, 47-49)
- 양심의 갈등을 겪으며 '악인이 되지 못한 장군' 맥베스는 벤코우의 망령이 나타나는 순간에 이르러서는 광기를 보인다.
 - 네가 그렇게 사라지면 / 나는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 Why, so: being gone, / I am a man again. (III, iv, 106-107)
- 맥베스는 악의 화신이 되지 못하고 미쳐 괴물이 되어 버리고 아내가 죽은 후에 군인으로 전투에 나가 맥더프와 겨루며 죽음이 이른다.
 - 항복은 싫다. I will not yield.

맥베스 부인(Lady Macbeth)

- 완전한 악인이 되기에 실패한 맥베스의 또 다른 자아, 레이디 맥베스: 그녀는 맥베스가 던컨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도록 자극한다. 그녀는 주저하는 맥베스를 재촉하고 격려하며, 그 와중에 자신을 맥베스에 투영한다. 이는 자신의 여성성과 모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이 순간 나를 여자가 아니게 해다오 /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잔인함이 넘치도록 해다오.
 - Come, you spirits / That tend on mortal thoughts, unsex me here, / And fill me from the crown to the toe top-ful / Of direst cruelty! (I, v, 40-43)
 - 그래서 젖을 빠는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만약 제가 그때의 당신처럼 맹세했다면 /
 - 갓난아기가 나를 쳐다보며 웃고 있을지라도 / 당장 보드라운 그 입에서 젖꼭지를 빼버리고 / 아기의 머리통을 박살낼 수 있어요.
 - I have given suck, and know / How tender 'tis to love the babe that milks me:
 - I would, while it was smiling in my face, / Have pluck'd my nipple from his boneless gums, / And dash'd the brains out, had I so sworn as you / Have done to this (I, vii, 54-59)

- 맥베스의 왕을 죽인 행위는 곧 맥베스 부인의 행위이기도 하다.
 - 제 손도 당신의 손과 똑같은 빛깔이 되었어요. / 그러나 마음속은 당신처럼 그토록 창백하게 질려 있진 않답니다.
 - My hands are of your color: but I shame / To wear a heart so white. (II, ii, 61-62)
- 그녀는 맥베스의 유약함을 지적하며 '악의'를 불태울 것을 지적한다. 하지만 5막에 이르러 그녀 자신도 자신과 남편이 행한 왕살해라는 사건에 스스로 충격을 받고 있다. 그녀는 핏자국을 지우려 애쓰며 몽유병에 시달리게 된다.
 - 사라져 버려라, 저주받은 얼룩이여! 사라져 버려, 제발! / 1시, 2시, 아아, 이제 그 일을 단행할 시간이다. 지옥은 컴컴도 하구나.
 - Out damn'd spot! out, I say! / One-two-why then 'tis time to do't. Hell in murky. (V, I, 35-36)
- 레이디 맥베스는 살인의 트라우마(Trauma)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녀 자신의 악행을 견뎌내기엔 약한 존재였다. 결국 그녀는 5막 5장에 서 남편보다 먼저 죽음을 맞는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여성성을 제어하며 또 하나의 맥베스가 되어 야심과 욕망을 완수하려 했지만 맥베스와 같이 유약함과 양심의 목소리에 쓰러지는 인물이 되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맥베스의 독백

- 그녀는 언젠가 죽어야겠지.
그런 소식을 언젠가 한 번은 들어야겠지.
내일,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일도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까지
하루하루 더딘 걸음으로 기어가는 거지.
우리의 어제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보여주지
우리 모두가 죽어 먼지로 돌아감을.
꺼져라, 꺼져라, 덧없는 촛불이여!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고 종종거리며 돌아다니지만
얼마 안 가 잊히고 마는 불행한 배우일 뿐.
인생은 백치가 떠드는 이야기와 같아
소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엔 아무 의미도 없도다.

- 맥베스 5막 5장(Act 5, Scene 5)
- 욕기 8장 9절. “우리는 어제 갓 태어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은 땅 위에서 그림자일 뿐”
-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가장 짧고 급속한 극의 전개로 긴장감이 넘친다. 던컨 살해 장면 부터 문지기가 희극스러운 한숨을 돌리는 장면까지의 전개가 특히 우수하다. 마녀의 등장과 같은 초자연적 요소가 돋보인다.
- 엘리자베드 비극의 일종으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공통적으로 주인공들이 어떤 성격적 결함을 갖고 있으며, 이 결함으로 인해 초래된 비극을 다루고 있는데 『맥베스』는 야망으로 인한 비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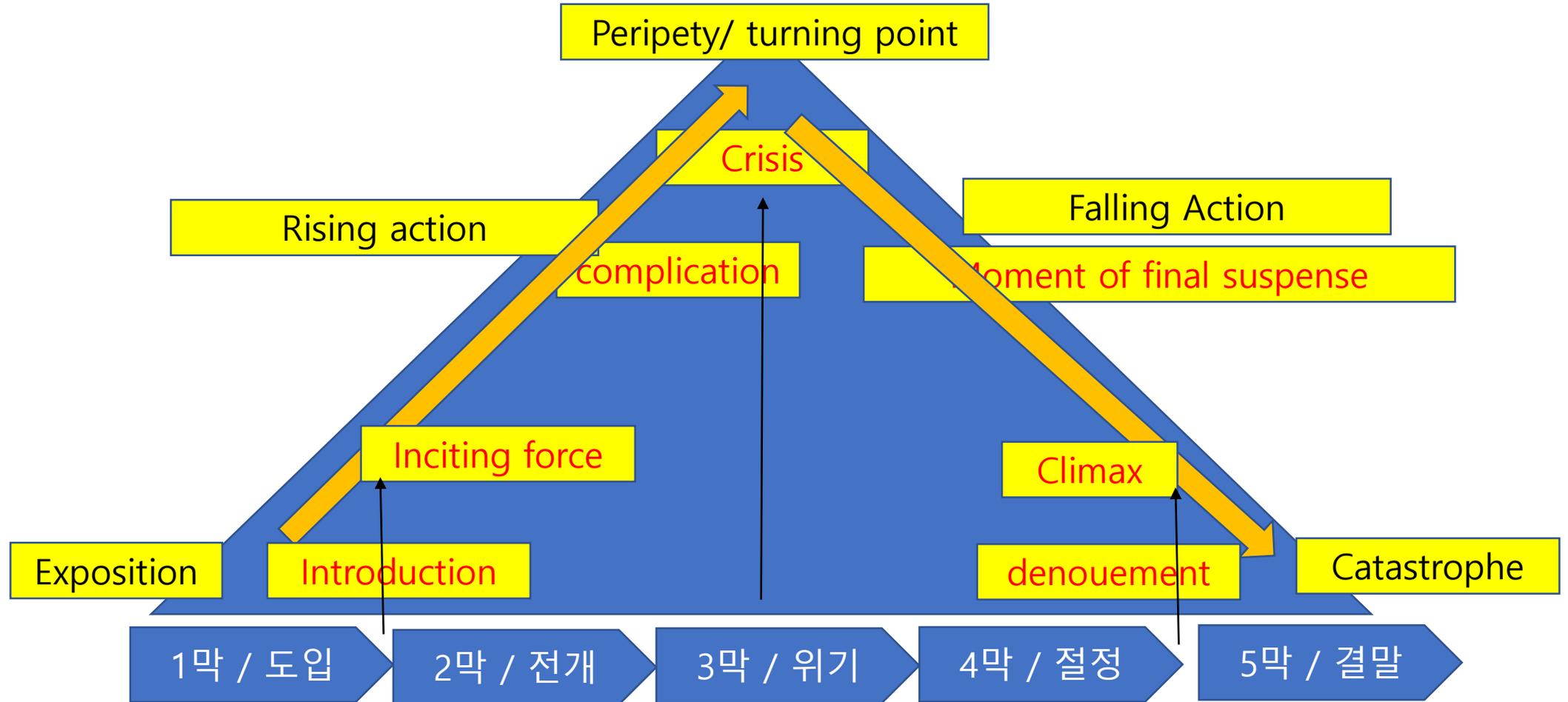
5막극

5막 구조 기준으로, 소설은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사건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지를 나타내는 단계다.

| 구조 | 핵심 | 극 |
|----|--------|------------------------------------|
| 발단 | 사건의 암시 | 그라비티 에서 나는 우주비행사다. |
| 전개 | 사건의 형성 | 그런데 인공위성의 파편이 몰아치고, 나는 살려고 노력한다. |
| 위기 | 사건의 심화 | 하지만 우주로 튕겨지게 된다. |
| 절정 | 사건의 고조 | 그래서 동료와의 연락도 끊겨지고, 절망한다. |
| 결말 | 사건의 해결 | 동료가 제트를 타고 나타나 날 구조한다. |

- 1막: 도입 Exposition
- 2막: Rising Action
- 3막: Crisis
- 4막: Falling Action
- 5막: Catastrophe

5막 구성



비극의 종류

- 그리스 비극: 운명에 의한 비극
- 로마 비극: 주인공의 육체적인 고통과 갈등을 더욱 과장하여 고문, 살인, 등의 피비린내 나는 장면
- 엘리자베스 비극: 개인의 결함에 의한 비극
- 근대비극: 주인공은 기존 사회의 법칙을 타파하려는 개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와 화해될 수 없게 되며 비극은 일종의 필연적인 충돌으로 인해 주인공이 파멸로 귀결되는 숙명적인 투쟁으로 표현

비극이 영속하는 이유

- Catharsis : 정화'(淨化)라는 의미. 현재는 [정신분석](#)의 용어로서, 정신장애의 요인이 되는 [콤플렉스](#)를 강하게 체험시킴으로써 이것을 해소하고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것을 정화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고대 그리스 [미학](#)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예술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란 말에서 생겼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무대 위의 비극을 봄으로써 연민이나 공포의 감정을 정화시키며, 또한 음악을 들으면서 인간들은 정화되어 마음이 후련해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카타르시스는 인간의 마음을 도덕적으로 고양시키는 것이라고도 해석되며, 또한 마음의 답답함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심리적 의미로도 해석되어 왔다. 또한 고대 그리스인 사이에서도 이 용어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 미학적뿐만 아니라 종교적, 생리-의학적으로도 쓰였다. 생리-의학적으로는 강한 감정의 긴장 해소를 카타르시스라고 보았다. 이 사용법을 위에서 말한 정신분석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카타르시스](#) [Catharsis, katharsis] (철학사전, 2009., 임석진, 윤용택, 황태연, 이성백, 이정우, 양운덕, 강영계, 우기동, 임재진, 김용정, 박철주, 김호균, 김영태, 강대석, 장병길, 김택현, 최동희, 김승균, 이을호, 김종규, 조일민, 윤두병)

『햄릿』

- 덴마크의 왕자인 햄릿은 얼마 전 갑자기 죽은 햄릿 왕과 왕비 거투루드의 아들이다. 왕비는 남편이 죽고 얼마 후 왕위를 물려받은 시동생 클로디어스와 결혼하는데, 이는 아들 햄릿에게 있어 부친의 죽음만큼이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마침내 부왕의 망령이 아들을 찾아와 숙부인 클로디어스가 거투루드를 부추겨 자신을 독살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복수를 부탁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햄릿은 그 망령이 자신을 미치게 만들려는 악마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복수하기를 주저한다. 그는 숙부의 의심스런 눈길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미친 척하며 사랑하는 여인 오페리아에게도 냉랭하게 대한다. 마침 그곳에 유랑극단이 들어오자 햄릿은 숙부를 떠보기 위해 국왕살해의 연극대본을 써서 상연케 한다. 그것을 본 클로디어스는 안색이 변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 그 후 햄릿은 그를 죽일 절호의 기회를 가졌으나 그가 기도를 올리고 있는 중이어서 복수를 지연시킨다.
- 햄릿은 문 뒤에서 숨어 엿듣고 있던 오페리아의 아버지를 숙부 클로디어스로 오인하여 그를 죽인다. 햄릿의 의도를 명확히 알게 된 클로디어스는 영국 왕에게 햄릿을 처치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를 영국으로 보낸다. 햄릿은 항해 중 해적의 기습을 받아 도망쳐 덴마크에 도착한다. 한편 햄릿의 배신과 아버지의 죽음에 상심한 오페리아는 머리가 돌아 물에 빠져 죽는다. 오페리아의 오빠 레어티스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귀국하고 왕은 감언이설로 그를 속여 독을 바른 칼로 왕과 왕비가 지켜보는 가운데 햄릿과 펜싱시합을 하게 한다. 햄릿은 상처를 입지만 그 칼을 빼앗아 레어티스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죽어가는 그의 입을 통해 왕의 음모를 알게 된다. 그러는 사이 왕비는 국왕이 햄릿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 준비해둔 독주를 마시고 숨이 끊어지며 햄릿 역시 국왕을 죽인 뒤 숨을 거둔다.

- H am let = Humanity is hindered. (인간은 방해를 받아 행동을 지연할 운명이다.)

-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사나운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 허용하는 것이 고상한 정신이냐,
- 아니면 바닷물처럼 많은 고난들과 싸워
- 물리치는 것이 고상한 정신이냐? 죽은 것은 잠자는 것.
- 그것뿐이다. 그리고 잠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아픔과
- 육체가 받는 수만 가지 충격들을
- 끝낼 수 있다면 잠이야말로
- 우리가 열렬히 바랄 최적의 결론이다. 죽는 것은 잠자는 것.
- 잠을 잔다면 아마 꿈을 꿀 것이다. 그렇다, 여기에 난점이 있다.
- 우리는 생의 굴레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 죽음의 잠 속으로 빠져들었을 때 무슨 꿈을 꿀지 모르기 때문에
-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3. 1, 55-67)

- 인간이란 무엇인가?
- 시간의 대부분을 자고 먹는 데만 사용한다면.
- 짐승, 그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 앞뒤를 재어 보는 위대한 이성을 인간에게 구비시켜 준
- 조물주는 확실히 그 신과 같은 이성의 능력을
-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 몸속에서 곰팡이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 우리에게 준 건은 아니다.
- 그런데 나는 짐승 같은 망각 때문인지.
- 결과를 너무 세밀히 생각하는 겁쟁이 같은 주저함--
- 이 생각을 네 등분하면 한 부분은 지혜이고 나머지 세 부분은
- 겁인데 -- 때문에 도시 어때서 아직 '이 일을 해야지'를
- 말할 뿐 행동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 더욱이 나는 그 일을 행할 명분, 의지, 힘, 수단을 갖고 있는 터에 말이다.
- 땅덩이 같은 분명한 예들이 훈계한다. (4. 4. 33-46)

-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Frailty, thy name is woman
-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be that is the question
- "한 마리의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신의 섭리다."

복수의 지연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 (8명)

- 폴로니오스, 길든스톤, 로젠크란츠, 오펠리아, 레아티스, 클로디오스, 어머니 거투르드, 그리고 본인
- 햄릿이 복수를 지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데, 이를 햄릿이 사색적이고 성격의 대담함이 없었기 때문(무능설)이라는 주장도 있고, 햄릿은 극단적인 도덕적 감수성으로 인한 감상벽 때문에 복수를 결행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햄릿은 복수를 부도덕이라고 치부하여 고민에 빠져 양심에 따라 냉철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 없었다(양심설)고 하기도 하고, 햄릿은 동기와 결과 등을 너무 지나치게 분석하고 검토하는 반성적, 명상적인 습관으로 인한 발달된 지성으로 행동능력이 마비되었기에 복수를 할 수 없었으며, 우울증으로 행동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도 한다.
- 또 오이디 콤플렉스에 의해 클로디오스가 햄릿 내면에 부친을 살하고 어머니를 차지하고 싶었던 일을 실천한 인물로 자신과 동일시 하여 살해할 수 없었다는 설도 있다. 또 그가 삶에 대한 비판의식이 너무나 예리해 행동이 미처 따르지 못했다는 비관론도 있으며 도탄에 빠진 덴마크를 우선 구해야 되겠다는 구국 사명설도 있다.

폴로니오스

- 햄릿 중 제일 불쌍한 덴마크 재상.
- 클로디어스의 심복이기도 하며, 햄릿의 연인 오펔리아와 레어티즈의 아버지이다. 왕비와 왕자의 이야기를 엿듣다가 햄릿이 클로디어스인줄 착각하고 살해당한다. 별로 나오지는 않지만 비극의 중심이야기로 가는 구심점이며, 햄릿이 폴로니오스를 죽인 걸 안 클로디어스가 햄릿을 죽이기 위해 영국으로 추방한다.
- 성격
 - 흠뻑 들으려는 것으로 보아 관음증 성향이 보이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미쳐 버린 딸과 프랑스까지 유학을 보낸 아들로 보아 꽤나 자녀들에게 인자하고 자애로우며, 자식의 장래를 생각하는 아버지이다. 재상을 할 정도로 보아 지혜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그리고 너의 기억 속의 이 몇 마디 충고가 너의 인물됨을 나타낼 것이다.
- 너의 생각을 헛바닥에 옮기지 말고,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어떠한 생각도 행동에 옮기지 마라.
-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되, 절대로 천박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 친분이 시험된 친구들은 너의 영혼을 다하여 쇠테를 둘러서라도 놓치지 마라
- 갓 태어난, 젖비린내 나는 방자한 자들 모두를 환대하기 위한 악수로 너의 손바닥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싸움판에 끼어드는 것을 조심하되, 끼어들게 되면 상대방이 너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
-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되, 너의 이야기는 적게 하라.
- 각각의 의견을 듣되, 너의 판단은 유보하라.
- 옷은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비싼 것을 사 입어라.
- 왜냐하면 의복은 종종 그 사람을 나타내니까
- 빌리지도 말고 꾸어주지도 마라, 왜냐하면 빛은 종종 빛과 함께 친구도 잃게 하니까.
- 그리고 돈을 빌리면 절약의 칼날을 무디게 한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 대해 정직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마치 밤이 낮을 뒤 따르듯, 그러면 너는 다른 누구에게도 거짓 되지 않게 될 수 있다.

- And these few precepts in thy memory look thou character. 그리고 너의 기억 속의 이 몇 마디 충고가 너의 인물됨을 나타낼 것이다.
- Give thy thoughts no tongue, nor any unporportion'd thought his act. 너의 생각을 헛바닥에 옮기지 말고,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어떠한 생각도 행동에 옮기지 마라.
- Be thou familiar, but by no means vulgar.: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되, 절대로 천박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 Those friends thou hast, and their adoption tried, grapple them unto thy soul with hoops of steel, 친분이 시험된 친구들은 너의 영혼을 다하여 쇠테를 둘러서라도 놓치지 마라
- But do not dull thy palm with entertainment of each new-hatch'd, unfledg'd courage. 갓 태어난, 젖비린내 나는 방자한 자들 모두를 환대하기 위한 악수로 너의 손바닥을 무디게 하지 마라.

- Beware of entrance into a quarrel, but being in, bear't that the opposed may beware of thee. 싸움판에 끼어드는 것을 조심하되, 끼어들게 되면 상대방이 너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
- Give every man thy ear, but few thy voice,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되, 너의 이야기는 적게 하라.
- Take each man's censure, but reserve thy judgment. 각각의 의견을 듣되, 너의 판단은 유보하라.
- Costly thy habit as thy purse can buy, 옷은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비싼 것을 사 입어라. (※ 古語의 habit 은 '복장'의 의미)
- But not express'd in fancy, rich, not gaudy, 그러나 터무니없고, 사치스럽고, 촌스럽게 번지르르하게 보여서는 안된다.
- For the apparel oft proclaims the man, 왜냐하면 의복은 종종 그 사람을 나타내니까 (※ for: 文語에서 "왜냐하면", oft : 古語에서 often)

- And they in France of the best rank and station are of a most select and generous chief in that. 그리고, 프랑스의 최상류 계급 및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점에 있어서는 가장 선택되고 고귀한 우두머리들이다. (※ generous: 중세 영어 "고귀하게 태어난 (종족)")
- Neither a borrower not a lender be, for loan oft loses both itself and friend, 빌리지도 말고 꾸어주지도 마라, 왜냐하면 빚은 종종 빚과 함께 친구도 잃게 하니까.
- And borrowing dulleth th' edge of husbandry. 그리고 돈을 빌리면 절약의 칼날을 무디게 한다. ※ husband, 古語에서 "절약가"
- This above all: to thine own self be true, and it must follow, as the night the day, thou canst not then be false to any man.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 대해 정직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마치 밤이 낮을 뒤 따르듯, 그러면 너는 다른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게 될 수 있다.

- 『햄릿』은 복합극이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아들의 복수라는 주제를 다양한 인물을 등장시켜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햄릿 주변의 많은 인물들은 햄릿의 성격과 문제를 조명해 주는 거울이다.
- 그 중 폴로니우스는 외적인 삶에는 질서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는 인식을 확실히 보여준다. 폴로니우스는 아들 레아티스를 파리로 유학 보내면서 젊은이의 처세해야 할 사항들을 조언한다. 그리고 딸 오펔리어에게 햄릿의 사랑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고 조언을 한다. 폴로니우스는 아들에게 문화인처럼 행동하는 법을 가르치고 오펔리어에게는 햄릿의 말에는 말 그대로의 것 이외의 뜻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고 충고하며 언행의 괴리를 보여준다.
- 폴로니우스는 아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탐꾼을 보내 파리에 있는 아들을 염탐토록 한다. 그 점은 그의 위선과 함께 모든 사물의 속에는 표면과는 다른 실체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돈 키호테와의 비교

- 한 가지 놓쳐버릴 수 없는 것은,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가 머뭇거리면서 결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가장 논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
- 이 인물의 특징은 19세기이래 돈 키호테의 행동형(투르게네프의 분류)과 대조되어 문학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일찍이 괴테와 콜리지가 지적한 대로 '순수하고 내성적이며 우울한 성격'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강한 햄릿'의 해석이 유력해지고 있다.
- 세르반테스 사망 년도

문제

- Literary Circle의 역할에 따라 『햄릿』의 주인공 중 아버지로서의 폴로니어스와 정치인으로서의 폴로니어스를 비교하여 그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가 아들에게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

-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갖가지 표현은 오늘날 영어에서 관용어 구로 자리잡았다. 가령 “살과 피”(flesh and blood, 혈육), “마음의 눈” (in the mind's eye, 기억), “더러운 행실”(foul play, 반칙) 등이 그렇고, “지나간 것들의 기억”(remembrance of things past)과 “소리와 분노”(sound and fury)와 “멋진 신세계” (brave new world)는 각각 마르셀 프루스트와 윌리엄 포크너와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제목으로도 쓰여 더욱 유명해졌다.

- 영국의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이 자신의 '영웅숭배론'에서 '셰익스피어를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고 언급
- 실존여부: 찬성하는 스트렛포디안(Stratfordian) / 반대하는 안티 스트렛포디안
 - Oxfordian Theory: The Earl of Oxford였던 Edward de Vere (1550-1604) – 근거 스트렛포드에서 살고, 그의 교육수준을 감안하면 그 방대한 자료와 표현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음